



효율적 배송시스템을 통해 LPG경쟁력 향상시켜야 ...

정성웅 영동가스충전소 대표

영동가스충전소(대표 정성웅)는 작년 배송센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판매소 4개 업체와 함께 올해 9월까지 배송센터시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정성웅 사장은 배송센터 참여 동기로 “수요자와 공급자간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LPG공급을 위해서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얻으면서 LPG 유통구조는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동가스는 배송센터 도입 이전인 99년부터 이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3톤과 10톤 벌크로리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130여기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LPG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LPG공급처와 절체 상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LPG판매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문배달에 의한 LPG용기공급, 체적거래 및 벌크공급 물량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정성웅 사장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고 있고 추가로 300여

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운 만큼 POS시스템을 통한 물량관리와 재고관리도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20kg, 50kg 용기에 대해서도 POS를 설치하고 가스공급 주기를 소비자 중심에서 충전·판매 등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배송시스템을 통해 LPG의 가격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배송센터 시범사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신규허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성웅 사장은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LPG의 안정적인 공급 / 물류비용 절감 /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LPG공급 / 안전관리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동가스충전소 현황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교동 795-3

사업소부지 : 3,014㎡

시 설 현 황 : 프로판 20톤, 부탄 20톤

